

# 부영, 혁신도시 교육청 중·고교 신설 요청 거부

### 부영주택, 혁신도시 고층아파트 건설 추진 특혜 논란 "초등학교 용지만 내 놓겠다... 법대로 하자"

부영주택(주)이 빛가람공동혁신도시에 대규모 고층 아파트 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육당국의 학교 용지 배정 요구를 반영하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녹지지역으로 묶인 땅(부영CC)에 무려 5300여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면서 다수 학생 유입에 따른 학교 신설 부지 제공을 요구하는 교육 당국에는 "법대로 하자"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부영주택측의 요구를 나주시 등 관계당국이 받아들일 경우 특혜 비판은 물론 '과밀 학급'에 따른 혁신도시 입주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1일 나주시와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부영주택 측은 빛가람동 908번지 부영

CC 35만2294㎡(용적률 185%) 부지에 최고 28층짜리 아파트 5328가구를 짓기 위해 나주시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해당 부지는 부영주택 측이 지난 2011년 전남개발공사로부터 체육시설을 짓겠다며 450억원에 분양받은 75만㎡의 골프장 부지의 일부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협의 과정에서 나주시는 "혁신도시는 용적률 기준 175% 이하, 최고층 높이 25층이라는 기준이 있다"며 아파트 건설 규모를 줄이라고 했으나, 부영주택 측은 최고층 28층을 최근까지도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축연면적 비율) 역시 179%로 기준 준수를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파트 건설 가구수는 원안보다

540가구 줄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영주택측은 전남도교육청의 중·고등학교 신설 요구도 거부했다.

도교육청은 "아파트 신설에 따라 다수의 학생 유입이 예상된다"며 초등학교·중학교 설립 용지 3만㎡, 고등학교 용지 2만7000㎡를 배정해달라고 구체적으로 요구했다. 나주교육지원청 역시 유치원 1개소, 초등학교 1개소, 중학교 1개소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부영주택 측은 나주시에서 "초등학교 용지 1만5000㎡만 내놓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관련 법에 근거해서 부영주택 측이 학교 용지를 배정해 나주시로서도 학교 설립 용지 배정을 강제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부영주택 측은 이 같은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건설업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75만㎡ 규모 부영CC의 54%에 해당하

는 40만㎡를 한전공대 설립 부지로 기부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과도한 특혜이자 지역사회 공동이익(학생 교육권 등)을 고려하지 않은 '사익 쟁기'라는 비판이다.

지역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9년 전 전체 부지를 450억원에 사서 절반 이상 부지를 기부했다라고, 잔여 부지에 530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라며 "애초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었다는 점에서 (부영주택의 요구가) 과도하다"고 말했다.

황광민 나주시의회 의원(진보당)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주시의회 의견 청취 절차가 있다"며 "부영주택 측이 한전공대 부지 기부를 했더라도 과도한 특혜가 있어선 안 된다"며 "주민 의견이 반영되고 특혜 논란이 일지 않도록 부영주택 측이 제라도 사업 안을 다시 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전남도 '행안부 마을기업' 18곳 선정

### 최대 1억원 지원 받아

전남도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올 하반기 '마을기업'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18곳이 선정됐다.

신규 지정된 마을기업은 여수잡곡영농조합법인(여수시), (주)선사인그림(광양시), 해남햇살영농조합법인(해남군), 녹색원영농조합법인(진도군) 등 4곳이며, 지난해 지정 후 2차(재지정)로 선정된 기업은 11곳, 3차(고도화)로 선정된 기업도 3곳에 이르고 있다.

특히 이번 심사에서 마을기업의 정체성을 보유하면서 매출성장을 이룬 재지정·고도화 마을기업으로 무려 14곳이나 선정된 전남도가 추천한 18개 기업 모두가 지정되는 광목활만한 성과를 거뒀다.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육성을 비롯 시설·장비 및 고도화 지원 등 전남형 시책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한

결과가 성과로 이어졌다는 것이 전남도의 분석이다.

마을기업은 주민 주도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수익과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으로, 지정되면 인건비와 운영비, 시설장비 등 사업비를 세 차례에 걸쳐 최대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기업이 생산한 제품 홍보 등 판로 지원과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 등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도 주어진다. 이와 함께 전남도는 오는 10월 공모할 내년 '1차 마을기업'에도 대거 지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영성열 전남도 사회적경제과장은 "지역에 뿌리를 둔 마을기업이 체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이를 통해 민선 7기 사회적경제 기업 2천개를 육성해 지역경제와 공동체 활성화에 밑거름이 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도, 농축산식품 공모 국비 1151억 확보

### 상반기 14개 사업 선정

전남도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의 공모사업에 참여해 올 상반기에만 14개 사업이 선정돼 1151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전남도는 1일 "100억원 이상 국비가 투입되는 대형프로젝트 4개를 포함해 14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미래 농축산업의 비전을 달성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주요 선정사업으로는 ▲신소득 유망 아열대작물 실증센터 기반 구축 350억원 ▲2020 농촌협약 시범도입 300억원 ▲2020 농촌 신활력 플러스 196억원 ▲2021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105억원 ▲2021년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사업 87억원 ▲2020년 GAP 시설보완 사업 4억원 등이 있다.

특히 최근 장성 삼계면에 유치 확정된 '신소득 유망 아열대 작물 실증센터'는 전남도가 범국가적인 아열대작물 재배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한 성과로, 고품질의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함께 대한민국 미래 농업을 이끌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2021년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와 지구, 기초생활거점조성 지구 등 총 3개 분야 12개 지구가 선정돼 사업비 385억원을,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함께 추진할 '농촌협약 시범사업'으로도 300억원을 확보했다.

올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1151억원의 국비를 확보한 것은 전남도가 블루이코노미 농수산 핵심사업 등 미래농업 기반 구축과 관련된 중앙 공모사업 동향을 꾸준히 파악하며 대응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도 '산업단지 태양광 지원사업' 수요 조사

전남도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단지 태양광 용지지원 사업' 참여를 위한 수요 조사에 들어간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자체가 관리중인 산업단지 내 공장·주차장 지붕을 비롯 개별입지 공장건축물, 공장 내 유휴부지 등에 대한 태양광발전소 설치비를 장기 저리로 용지지원에 주는 사업이다.

최근 산업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한국판 뉴딜사업 일환으로 국비 2000억원을 올해 정부 3차 추경 예산안에

편성했다. 용자는 설치비의 최대 90%까지, 1.75% 변동금리를 적용해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지원한다. 이로 인해 적은 초기 투자비용으로 정기적인 발전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희망한 사업자는 오는 7일까지 시·군·에너지 관련 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인허가 절차와 용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1855-3020)으로 문의하거나 신재생에너지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스마트팜 혁신밸리 자문단 회의 1일 오전 전남도는 김영록 전남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청 정약용실에서 스마트팜 혁신밸리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스마트팜 선도농가인 김중용 흥양영농조합법인 대표, 명동주 농업회사법인 씨너스 대표와 신창선 순천대 교수, 나해영 목포대 교수, 김용규 전남테크노파크 센터장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고품종 도덕면 가이리 간척지 33ha에 총사업비 1100억 원을 들여 오는 2022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전남도 제공>

# 코로나19 피해 지역 중기 1400억 추가 지원

### 전남도·전남중기진흥원...매출 10% 감소 병의원·여행숙박업 확대

전남도와 전남중기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 1400억원을 추가로 지원했다. 최근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도산 위험에 처한 지역중소기업에게 긴급 및 일반경영안정자금을 전격 지원하기 위해서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들의 추가 운영자금 지원 요청도 잇따르고 있다. 이번 긴급자금은 기존 일반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인 제조업 및 제조·지식서비스업뿐만 아니라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병·의원, 여행·숙박업,

여객·화물운송업 등으로 범위를 넓혔다. 기업별로 최대 매출액 50% 이내에서 5억 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지역 기업들의 긴급자금 수요에 더 능동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전남도와 진흥원은 1일 기준에 시행해 온 일반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접수도 시작했다.

우천시 진흥원장은 "최근 코로나19 재

확산으로 인한 글로벌 무역 약화 및 내수 경기 침체의 장기화와 더불어 북한 도발 사태 등으로 국내외 경제정세환경이 극도의 불안정한 상황에 처해있다"며 "코로나 직접 피해기업을 포함한 도내 모든 중소기업들이 현재의 위기를 무난히 극복해낼 수 있도록 운영을 다 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흥원은 1일부터 본원(무안)과 동부출장소(순천)에서 동시에 긴급 및 일반 경영안정자금을 포함한 전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서를 접수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의료광고심의필 제 191202-중-102256호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 첨단우리병원

척추, 관절 중점 치료

한결같은 마음으로 "곧은 척추, 굳건한 관절"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 보청기

##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